

2023. 5. 4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

주거환경개선과장	오장환	2133-7240
안심집수리지원팀장	변종진	2133-7259
담 당 자	박상민	2133-7261
	정성재	2133-726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3쪽

### 서울시, 주거약자 환경 개선 '안심 집수리' 5월 말까지 2차 모집

- 5.31(수)까지 자치구로 접수...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, 반지하 주택 대상
- 주거 취약가구 거주하는 저층주택 공사비의 80%,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
- 단열·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, 안전·편의 시설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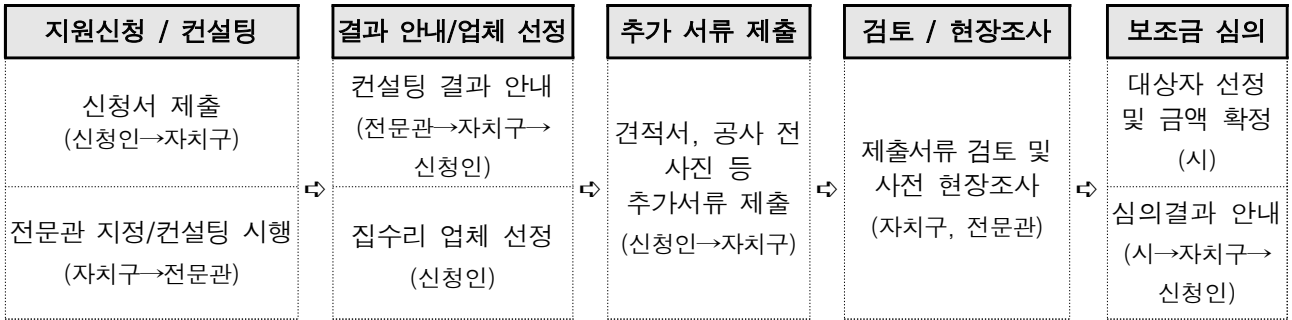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'안심 집수리 보조사업'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.
- 서울시는 지난달 1차 '안심 집수리 보조사업'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5.31(수)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▲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% 이하 주거 취약가구 ▲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.
-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(다중·다가구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)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다자녀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.

-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%, 최대 1,000만원,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%,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.
- 단열·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, 침수·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, 내부단차 제거·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.
-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’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(신청서 및 첨부서류)를 제출하면 된다.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,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▲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▲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▲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.
-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을 체결,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‘안심 집수리 보조사업’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〈첨부1〉

#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

○ 지원 및 결정 단계



○ 공사 및 지급 단계

